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8월 25일 (제101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임계점(臨界點)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나는 연일 밤 9시부터 12시를 넘겨서까지 장장 4시간 가까이 설교를 계속했다. 어떤 이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몸을 돌보시라'고 했지만, 우선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그랬고, 둘째는 나의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였다.

물질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온도와 압력이 있다. 그것이 임계점이다. 동일하게 삶에서도 무엇인가 이루고, 평범한 삶이 성공의 삶으로 변화하려면 절대적인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를 보자. 그녀는 매일 안하무인인 재판관을 찾아갔다. 하루, 이틀, 일주일..... 날이 가도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변화가 없던 어느 날의 다음 날, 재판관은 귀찮아서 그녀를 만나왔다. 과부가 임계점을 넘은 것이다. 만일 임계점에 이르기 하루 전날, 과부가 포기했다면 과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그렇다. 성공한 사람들은 임계점을 뛰어넘은 자들이다.

거목을 자르겠다고 톱질을 하다가 힘들다고 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톱질한 자리에 나무의 진액이 흘러나와 굳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톱질 자체가 어려워진다. 힘이 들어 팔이 떨릴 뻔하는 그 순간만 넘으면 꿈쩍 않고 버티던 나무가 어느 순간 넘어간다. 그러니 포기 말고 쫓 먹던 힘까지 다해 한 번만 더 톱질하라.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더는 안 될 것 같은 일, 죽을 것 같이 숨넘어가 는 그 순간에 해오던 대로 조금만 더 노력하라.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달려라. 거기가 임계점이다. 그 임계점만 넘으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 실패가 성공으로, 승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먼저 청소년수련회와 어린이성경캠프, 하계산상집회 등 총 3주간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최선을 다한 스태프,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그날의 상을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한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번 3주간의 집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으나 그중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몸소 온 몸을 불태우며 보여주신 '임계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선명히 각인된 듯하다.

목사님은 매일 집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저녁 9시에 시작하신 설교를 꼭 밤 12시를 훌쩍 넘겨서 마치시곤 하였다. 온몸을

성도들 모두가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런 의도는 감지하지 못하고 목사님 건강만 걱정하며 절제하시라 한다면 가르치는 자로서 참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의 의도를 깨닫고 찾아와 '목사님께서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다'며 감사를 표할 때 목사님은 가장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 보통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할 만큼 했어'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12시 전에 끝낸다고, 아니 하루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다.

안 된다, 못한다고 포기하는 자들에게 목사님은 온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도대체 어디까지 해봤니?' 성경의 인물들 역시 이런 극한 상황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하디귀한 아들을 죽여야 했다.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을 지금 당장 버리려면 버릴 수 있겠는가? 자문자답해 보라. 애굽 군대에 쫓겨 홍해 앞까지 이르러보았는가? 턱밑까지 죽음이 엄습하는 위기에 처해보았는가?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으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러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 더구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도 계시다.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2019 하계산상집회)

뛰어짜듯 외치시는 설교는 20대의 건강한 청년조차도 소화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목사님 연세에 이는 누가 봐도 무리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목사님이 단에 오르셔서 오로지 추구하시는 바는 당신의 설교나 그 모습을 통해 단 한 사람의 복을 제발 받아 누렸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목사님은 당신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까지도 숨김없이 다 쏟아내신다. 목사님 스스로도 임계점을 뛰어넘어보겠다는 각오로 하신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나

그 정도 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이 집회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신 줄 다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지난 춘계집회 때는 시간을 앞당겨 시작하신다고 광고하셨다. 다들 '아~ 일찍 시작하시고 좀 일찍 끝내주시려나?' 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오히려 끝나는 시간이 더했으면 더했지 일찍 끝내주신 법이 없다. 당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먹일까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이었다.

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8).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가야 한다. 자신이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어 목사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정신과 자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라. 도전해보라. 그렇다면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시듯 안 되는 게 기적이다.

한계와 담대히 대면하자. 그리고 뛰어넘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자.

한은택 목사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산상집회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9:12~27)



남탓 말고 너 자신이나 점검해라

지난해 잣 대학생이 되어 부푼 꿈을 가지고 첫 행사인 오리엔테이션에 갔다가 투숙한 리조트의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열 명의 어린 학생들이 아깝게 세상을 등진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그랬나요? No. 비만 조금 오면 하수구가 막히고 물이 역류되어 도로가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재(天災)일까요? 아닙니다. 다 인재(人災)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대자연의 천재(天災)가 아니라 충분히 노력하면 예방 가능했던 인재(人災)였습니다. 원인은 점검부재입니다.

점검부재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자동차가 고장이 나 서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차가 낡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검진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거의 무료입니다. 2년마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큰 병은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국가에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나중에 하지' 합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전복되고, 그러다가 도로에 물이 넘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형 삶이 되지 말고 점검형 삶이 돼야 한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인 줄 압니까? 그것은 수리형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소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치고, 죽은 다음에 병원 문을 두드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하지. 늘 뒤통수 맞은 후에, 일이 터진 후에 수리하느라 허둥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느라 애쓰고 낭비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야 후에 몇 달이 걸려서 수리하면 된다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점검을 하지 않아서 신앙이 녹슬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대로 세상을 등지면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신앙의 점검지침표입니다. 성경을 거울삼아 늘 우리를 조명하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피고, 성경의 인물 중 신앙을 잘 점검한 자의 삶과 점검하지 못해서 신앙에 녹이 쓴 사람의 삶을 비교 분석하여 내 신앙을 튼튼히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알 수 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4~5). 신앙을 살피지 않아 첫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 금세와 내 세대에서 살게 하신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는 것입니다. 전깃불이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인생에 어둠이 오면 삶이 넘어지고 다치고 도둑이 들끓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도 보이지 않고 수렁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안 가면 조장이 전화하고 심방 오니까 억지로 갑니까? 찬송하는 것이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봉사하던 손을 놓고 싶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점검하고 진단하여 처방해야 합니다.

배나 비행기가 운항할 때 목적지를 향해 방향타를 정하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처음 지정해놓은 방향타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바람이나 기류, 파도에 의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항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

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고후13:5)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들은 고장 날 줄 알면서, 사고 날 줄 알면서 점검하지 않을까요? 게을러서입니다.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내일 하지 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여 이

렇게 말 씀 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잠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을러서 얻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 놀고먹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아서 일을 잘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게으름이 몸에 젖어서 일을 시키면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이빨에 초를 부음 같고, 눈에 연기를 뿜는 것과 같아 자 충수를 두는 격이기에 저는 반드시 바쁘게 일하는 자를 택해 일을 시킵니다(잠10:26).

누가복음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눅12:35~36)는 말씀이 있습니

다. 이는 외출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등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마24:42)고 말씀합니다. 이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도적이 들어오지 않게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내 인생의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게을러서 교회 못가니까요. 게을러서 공부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운동도 못하고, 게을러서 빨래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란 놈은 성공을 도적질하고, 건강을 도적질하고, 화평을 도적질하는 나쁜 놈으로 인생의 암적 존재요, 성공의 최대 적입니다.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여러분, 점검은 부지런함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아들딸을 점검해야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내 건강을 살피야 무병미락장수합니다. 부지런히 기업과 직원을 살피야 부도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교회와 성도를 살피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국가를 살피야 국가가 도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며 내 영혼을 살피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점검을 할까요?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 관심은 살리는 것이요, 무관심은 죽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 뒤편 닭장에 올라가보니 제 눈에 닭 숫자가 적어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닭장이 열린 줄 모르고 개를 풀어놨다가 개가 닭 18마리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 마리 양을 데리고 가다 한 마리가 이탈한 것까지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사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해야 살피는 겁니다. 직장을 사랑하면 허튼 불이 켜졌나 살피게 되고요. 영혼을 사랑해야 성도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경영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세계를 경영하겠고, 나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기업인들 관리하겠습니까(잠25:28)? 경영의 첫걸음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을 떨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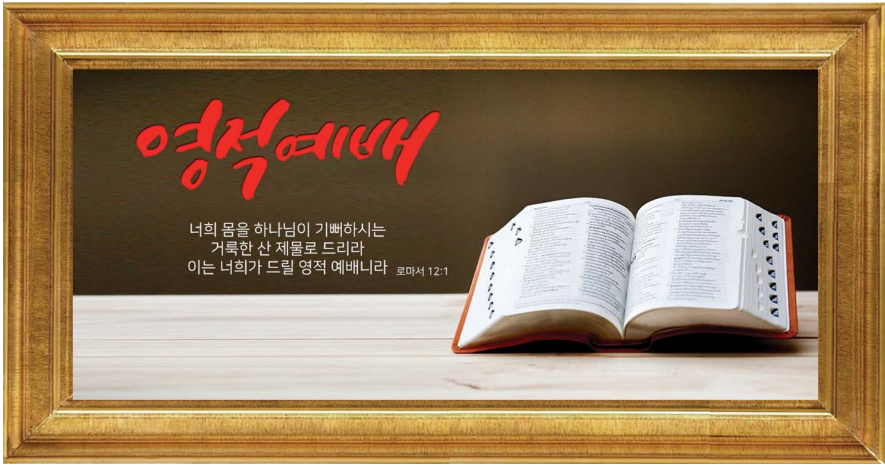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대의 흐름만 좇아 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볼 때 잘못 되었으면 틀린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꼬리도 있으며, 위도 있고 아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회 전반과 교회의 질서마저도 파괴하려는 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도 얼마나 고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틀렸습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에 ‘사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첫 장 제1 앞머리에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죄악 된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광경은 지금 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25:29)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이나 동정,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10월 11일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날입니다. 그들의 삶이 불쌍하다고 그것을 인정해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세계 28개국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자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는 웃지 못 할 일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얼렁뚱땅 구령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다가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흥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포기는 자살이다

R.U.다비는 골드러시 시절에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향하여 광맥을 발견하고, 온 가족과 함께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된다. 양질의 금이 채굴되는 것을 본 다비는 무지갯빛 꿈을 꾸며 기뻐한다. 그러나 얼마 후 이변이 일어났다. 광맥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의 무지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그 땅과 장비를 고물상에 헐값으로 팔아버리고 말았다. 고물상 주인은 채굴기를 시험해볼 양으로 다비가 멈추고 돌아선 곳을 파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1m가 못 되어 엄청난 금맥이 발견되었고 고물상 주인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비는 크게 깨닫고 ‘No 할 때 On 하시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만두어야겠다고 할 때, 그때가 다시 시작할 때이다. 다비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보험사의 세일즈맨이 되어 끈질기

게 일한 결과, 연간 1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공자가 되었다. 목사님은 임계점을 말씀하시고,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자는 성공자가 된다고 다시금 재도전할 것을 강조하신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잠24:16).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시절을 탓하며 두려워한다. 때로는 우리 삶의 끝이라고 느끼는 상황이나 환경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다시 한 번 재도전해야 할 때이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국가의 총체적 상황이나 기업,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9번 하고서 ‘안 된다’ 하지 말고 10번 재도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리고가 무너짐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27). **김상욱 목사**



:: 진리의 학당 ::

선악과와 십계명 (출애굽기 20:1~17)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모든 의의 길을 세우신다(시23:3). 이에 따라 보좌에 지음 받은 천사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이름을 섬겨야 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그 이름에 순종해야 할 터이나, 천사장 중 루시엘이라 하는 빛의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중책을 수행하던 여호와와의 사자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다. 동일한 피조물일지라도 여호와와의 사자를 대적한 것은 곧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 하극상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흑암에 음부라고 하는 우주를 지으시고 들어오셔서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보좌에 오르셨고, 때가 차면 다시 오셔서 마귀를 형벌하실 것이다(유6).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의 타락 양상이 무엇인가(사14:12~15, 겔 28:13~17)? ①‘나도 하나님이 되리라’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한다. ②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한다. ③나도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에 게 불이니 망명되다. ④자기 지위를 떠나 거역함으로 평화한 하늘을 혼돈시켜

버렸으니 이 네 가지가 사단의 사상이요 범죄의 양상이다.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요, 인류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마귀다. 하나님은 흑암 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롬5:14)을, 산 자의 어미로서 하와(창3:20)를 두셨으니 그들은 곧 인자가 오실 길에 부름 받은 사명자들이다.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미혹해 들어올 때, 사단의 근본사상과 똑같은 양상으로 접근했으니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정하고 ‘네가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못 먹게 한 것’이라 미혹했고, 거짓에 속은 하와는 자신도 하나님이 되고 싶은 야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①유일신에 도전하여 ②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 하고 ③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고 ④돕는 배필의 지위를 떠났으니 에덴에도, 자신에게도 안식이 떠났고, 그 여자에 의해 아담도 무너지고 말았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은 세상에 쫓겨 내려와서도 그 근성으로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 죄의 본질은 항상 반복된

다. 이렇게 사단의 타락과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는 범죄 양상은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함과 같다(요일3:8). 유월절 피의 문을 통과하고 홍해에서 신령한 반석의 생수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은 무엇인가? ①너는 유일하신 신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②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③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 섬겨라. ④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다. 이는 하늘에서 타락한 불의한 천사가 그 사단의 근성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미혹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라 하는 계명이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11:3). 이와 같이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과 함께 동산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창2:15),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의 영적전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심과 같다(엡 2:2~3, 6:11).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려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휴식 없이 역사하는 음부의 영인 귀신 멸하는 일을 중단 없이 수행할 직임을 받았다(계12:17).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확고한가?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목숨보다 중한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안식을 위해 세상유혹을 깨뜨리겠는가? 내 영혼아, 진리로써 육신의 정욕을 유산시키고 생명의 빛으로써 음부의 유혹을 이기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 to the ground, which didst weaken the nations”(KJV Isaiah 14:12). **박덕규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 참된 깨달음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잠16:9). 요즘 내 맘을 잡아주는 말씀이다. 언제 어디서나 중얼중얼 기도하듯 읊조리며 나를 다스리고 있다. 15년 넘게 엄마와 함께 일구어 온 사업장이 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취업 걱정 없이 엄마 곁에서 일을 배우며, 또 엄마를 도우며 지내왔다. 그런데 엄마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간 어깨너머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전적으로 내가 관리하게 되었다. 갑작스런 상황과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자 매일 밤 초조해서 잠을 못 자고, 출근길은 목이 타는 불안감의 연속이었다. 지금은 처음보다 안정감이 생겼지만, 순간순간 찾아드는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늘 나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고백하면 나는 2세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씩 준비해나가는 중인데, 하나님은 나의 단짝 친구에게 먼저 2세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쟁심과 시기심도 쉽게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人

之常情)이라 생각한다. 평소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며 투덜거리던 친구가 ‘나도 둘째를 가져볼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3개월이 되지 않은 지금 임신을 한 것이다. 친구의 연락을 받은 날, 나는 그간 쥐고 있던 긴장의 끈을 놓고 말았다.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뒤엉키면서 견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혼자 견디기 힘들어 무작정 찾아간 교회에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눈이 부어 떠지지 않을 때까지 울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중에 하나님의 기도가 떠올랐고, 마음을 다잡고 나에게도 한나가 받은 축복이 찾아오길 간절히, 아주 간절히 구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기다림에 담긴 하나님의 방식을 배웠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의 영적 근육이 더 튼튼해져서 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되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른다. 영화 <벤허>의 전차 경주에서 벤허가 메살라의 공격에도 끝까지 버티고 결국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랜 시간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며 단련된 그의 어깨와 팔에서 나왔다. 노예선 안에서의 고된 노동의 시간간이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다. 옥에 갇힌 요셉의 기다림은 어떠한가?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30세가 되어야 가능했다고 한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기까지 기다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총리가 될 수 있는 때까지의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를 누르는 이 부담감은 무엇을 위한 기다림일까? 내 평생 이토록 간절하게 원해본 무언가가 없을 만큼 간절한 2세의 축복이 지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세상의 온갖 지식과 상식으로 재단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털끝만큼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의지와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그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이 기다림 끝엔 반드시 주님께 돌릴 영광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멘!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 From Internet ::

청춘의 정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맥아더는 그의 집무실에 ‘사무엘 열만의 청춘’이란 시를 붙여놓았다고 한다. 그 시는 이렇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건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관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의 우수성과 감성적 활력의 문제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 욕망의 소심함을 넘는 용기와 타고난 우월감과 인이를 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청춘은 때때로 20세의 청년

보다 60세의 노인에게 존재한다. 단지 연령의 숫자로 늙었다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황폐해진 우리의 이상에 의해 늙게 되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버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60살이든 15살이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경이로운 것에 대한 매혹, 무언가에 대한 끊임이 없는 욕망, 삶 속의 환희가 존재한다면, 희망, 희열, 용기와 힘의 메시지를 갖는 한 그대의 젊음은 오래 지속이 되리라. 안테나가 내려지고, 그대의 영혼이 냉소의 눈과 비판의 얼음이 덮이면 20세일지라도 늙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안테나를 올리고 낙관주의의 물결을 잡는다면 그대 80세일지라도

청춘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70의 나이에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거사를 도모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나는 생물학적 나이는 70세이나 정신적 나이는 이제 30대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시 30년을 계획하고 달리고 계신다. 목사님은 아직 청춘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정신적 나이는 몇 살인가? 꿈과 희망, 열정,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노인이다. 못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것은 곧 노인이나 청춘이냐의 기준이 아닐까? 당신은 젊은이인가, 노인인가?

예수중심편집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78세 김 할머니는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우울증, 위장병까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다. 김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식사 후 약을 챙겨먹는 일이다. 아침 공복에 먹는 혈압약과 위장약 2알을 시작으로 아침 식후에 먹는 약은 8개, 점심식사 후에는 3개, 저녁식사 후에 5개, 불면증 때문에 잠자기 전에 또 2알의 약을 먹는다. 총 20개의 약을 벌써 여러 달째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속은 여전히 불편한데다 지난주부터는 어지럽고 몸이 붓는 증상까지 생겼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신장기능이 좀 나빠졌고 위궤양 소견이 확인되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동시에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을 복용할 때에는 특별히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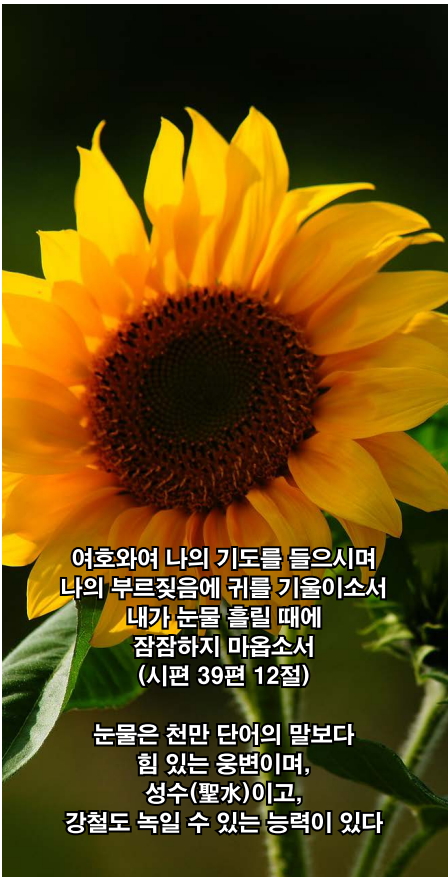
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들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가장 흔한 약 부작용으로는 소화 장애나 위염, 위궤양, 빈혈, 백혈구 숫자의 감소, 간기능과 신장기능의 손상, 졸림, 입 마름, 변비, 기운 없음, 정신이 흐려지는 증상 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할수록 더 심해지는데, 약과 약이 섞이면서 원하는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 10명 중 8~9명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4~5명은 3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안고 살아간다.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 5가지 이내로 복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보다 많으면 약물 과다복용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약물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줄어들거나 부작용이 더 생기는 약물도 많다. 따라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줘야 하는데 양약뿐 아니라 한약, 영양제, 보조식품까지 상세히 말하고, 과거 약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야기해야 하며,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약 이름과 그 효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언제 병원에 와야 하는지,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물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물어보아야 한다. ‘약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 부탁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아들 예수께서 다 이루어드린 일을 제자들 역시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아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양 댐을 만든 후 물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고, 안동댐 역시 3년이 걸렸고, 가득 채운 후에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 후 이삭을 받으셨고, 한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후에 사무엘을 받으셨으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신 후 옥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은혜가 있고 잊혀지는 은혜가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목숨 걸고 충성봉사 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체험적인 앎을 통해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충성은 변함이 없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죽을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어떤 일을 부탁하면 최선을 다해 기필코 정신으로 다 이루어냅니다. 2019년 하계산장집회에서 받은 은혜로 맡겨진 일에 충성한 모든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김정옥 전도사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편 12절)

눈물은 천만 단어의 말보다
힘 있는 웅변이며,
성수(聖水)이고,
강철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